인후3동 주민자치위, 행복나눔 꾸러미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광식)는 지난 14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화장지, 라면, 두유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꾸러미 20세트를 전달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최광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러한 기부활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후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웃돕기 물품 전달, 취약지역 정비, 나눔행사 등을 통하여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오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남원 대한불교조계종 영월사 이웃돕기 물품기탁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은 관내에 위치한 영월사(주지 금강스님)에서 15일 면사무소에 이웃돕기 물품 백미 10㎏ 50포(환가액 150만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금강스님은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물품이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되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지역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으며, 영월사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지역주민을 위한 물품기탁을 비롯해 크고 작은 이웃돕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인월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손길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을 보듬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월대보름을 풍성하게"

효자2동 지사협, 정월대보름 맞이 영양찰밥 나눔 봉사

한해 처음으로 달이 가득 차는 정월대보름에 저소득 세대를 위한 나눔이 겨울철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주시 효자2동(동장 김혜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현오)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동 주민센터에서 '사랑愛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조리한 영양찰밥과 각종 나물, 부럼 등을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최현오 위원장은 "회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영양찰밥과 밑반찬을 맛있게 드시면서 보름달을 보며 소원도 빌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돕기 및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혜숙 효자2동장은 "정성가득한 영양찰밥과 밑반찬을 나눔으로써 소외계층이 풍성한 정월대보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봉사해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행복한 효자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아쿠르트 배달사업, 명절 이웃돕기, 선풍기 나눔행사, 삼계탕 봉사, 김장김치 나눔 등 효자2동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 나눔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정월대보름 맞아 건강과 풍요 기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5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이경자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장, 정명숙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장을 비롯한 시군 대의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맞이 대보름 꾸러미 행사와 농주모·고주모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대보름 꾸러미는 땅콩, 호두, 오곡 등 우리 농산물로 구성됐으며, 전북 각 시·군 홀로어르신 등 취약계층 500여 가구에 회원들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진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정재호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지역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경자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올 한해도 우리 전통문화 터전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가꾸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

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농가주부·고향주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회원들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발대식 가져

남원시가 취약계층 생활격차 완화를 위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현장민원 추진을 위해 15일 "함께하는 120민원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공무원과 민간봉사자 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동적인 시정운영 및 2022년도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민(수요자)중심의 행정추진과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치도록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9개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120민원봉사대는 매주 화?수?목 1개 마을씩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 전기 ? 가스, ?수도 ▲이동빨래방 ▲농기계수리 ▲복지상담 ▲치매상담 ▲한방상담 ▲마음안심서비스(정신건강)등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시민중심의 봉사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개발공사,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헌혈 행사는 전북개발공사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직원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인 혈액 수급 부족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적극적인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헌혈 참가자들은 사전 체온측정 및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으며 헌혈 참여자별 시간을 지정해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진행됐다.

김천환 사장은 "우리 공사는 헌혈 행사와 같은 다양한 나눔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지난 2015년부터 7년째 '사랑의 헌혈' 행사를 추진 중이며,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헌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희 기자

전주시 공무원, 헌혈로 생명사랑 실천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혈액수급난이 심화된 가운데 전주시 공무원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1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등 3곳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헌혈운동은 전체 헌혈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방학으로 헌혈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혈액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에 참여한 전주시 공무원과 시민에게는 헌혈증과 함께 △혈액검사 △혈압체크 △빈혈검사 △간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매독항체검사 △에이즈검사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영화관람권 등 기념품도 제공됐다. 헌혈증은 향후 본인과 가족의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